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26 1981년9월2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September 23. 1981

SEP 25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나성 총영사 봉변

「한인회 • 재단 통합시기상조」 발언으로
남가주 한인회 대표 흥분해 멱살잡기도

(나성지사)남가주한인회 7인 대표위원회(대표 김명균) 위원 5명은 17일하오 1시30분 나성 총영사관을 방문 박민수 총영사의 『한인회와 재단과의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모처럼 교포사회에 단합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이때 박총영사의 발언은 교포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한인사회를 밀어줘야할 총영사의 입장에서 한인회와 재단이사회가 일차 모여 보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그동안 영사관측이 한인사회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짙게 풍겨왔다면서 차제에 영사관측은 교민에 봉사하고 교포사회 단합을 촉진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총영사는 본인은 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하고 통합문제는 찬성과 반대측이 모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신중히 협의해 자체식으로 해결할 것을 바란다는 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위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언성을 높혀 항의하는 바람에 영사관 내부가 소란에 빠지기도 했다.

일부 위원들은 지나치게 흥분, 박총영사의 멱살을 잡는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까지 감돌았으나 박총영사가 자치단체에 불개입을 이라는 태도를 재천명하고 교포사회의 단합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영사관측 입장이라는 설명을 듣고 흥분을 가라앉혔다.

NHL 10월 시즌 앞두고
일제히 시범경기 돌입

NHL하키시즌이 10월로 박두하면서 각 NHL팀은81 ~82시즌에 대비, 시범경기 등 전력정비에 여념이 없다.

토론토·메이플립스도 코치「마이크·니콜럭」의 지도아래 훈련에 열중이다.

18일(금)메이플·립 가든에서 열린 미네소타·노스스타와의 경기에서 메이플립스는 비록 2:0으로 졌으나 몇몇 나이어린 신인선수들의 활약으로 금년도 전망을 밝게 해준다.

디펜스멘「프레드·보이미스트럭」윙어「스튜어트·가빈」은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신인들이고 올해 이팀의 넘버원 드래프트로 선발된 18살의「짐·베닝」도 시합이 계속됨에따라 실력이 향상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합에서 메이플립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작년에「몬트리얼캐네디언」팀에서 이전한 골리「마이클·라록」의대 활약이었다.

작년시즌에는 허리의 부상으로 실력을 발휘하지못한「라록」의 선전 NHL 의 넘버원 골리가 되리라는니콜락코취의 희망을 부풀게 했다.

이날 메이플립스는 대릴·시틀러, 윕프·패이망, 테리·마틴과 같은 일급공격진을 기용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경기를 우세하게운영하면서 33골의 슛을 퍼부었다.

메이플립스가 한골도 얻지못한 주원인은 노스·스타의「길리스·메로채」와「돈·버프레」같은 일급 골리들의 선방때문이다.

코취「니콜락」은 이번 시범경기의 목적은 신인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하는데있었다고 말하며, 그점에서볼때 이 경기는 아주 만족한 것이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19일(토)하트포드에서 열린「하트포드·웨일러」와의 시범경기에서 「메이플·립스」는 3:3으로 비겼다.

메이플 립스는 작년시즌에서 21개팀중에 16위로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1회전에 작년도 NHL우승팀 「뉴욕·아일랜더」에게 3연패하여 탈락했다.

올해의 NHL경기방식은 21개팀이 리그전을 벌여순위대로 16개팀을 뽑는 작년과는 달리 동서리그로나눈후 각리그에서 또 2개조로 나눠 각조의 1, 2위가본선에 진출한다.

◇화기애애한 우애를 꽃피우는 윷놀이 예선전(한복차림의 여선수는 김정숙 아나)

◇메이플·립스의 골리 「마이클·라록」이 선방하며 골을 막고 있다. 네트 뒤에 「이안·턴불」과 「록키·새고낙(7)」이 분투하고 있다. 17일 (금)메이플·리프·가든에서 노스스타와 첫번째가진 시범경기에서 토론토는 2:0으로 졌으나 신인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웃으며 함께 즐기며
피부색 초월한 추석윷놀이

지난 19일 하오 스카보로 시다브레도서관에서 열린 추석놀이 행사에는 60여명의 교포와 30여명의백인이 함께즐긴 친화·우애에 넘친 한국적 민속잔치였다.

하오2시 한국문화영화및 "풍습"김치와 "잠안"이 약30분간 상영에이어 한인Y무용단의 화관무가 김정숙선생 안무로 10명의 소녀춤으로 상영된후 3색 시루떡등 한국음식 드링크등을 요기하고 윷놀이에 들어갔다.

이 윷놀이는 한인과 타민족 각1인씩 한조를 이루어 팀대항 토너먼트로 예선, 준결승, 결승전을 벌여 출전자는 물론 관중들까지 동심에 돌아가, 모나 윷이 나올때 마다 환성이 터지는 유쾌한 수시간을 보냈다.

윷놀이 열전을 거듭한끝에 아래팀이 행운의 입상을했다.

◇1등 : 짐·몽고메리 (시다브레도서관장)
황 인 주
상품—한국인형(대형)
2등 : 에디(도서관 임시직원)
이용건 (토론토대학 1년)
상품—예단대상
3등 : 문성철 (유형승씨 부인)
존·리(도서관 임시직원)
상품—반가좌상
4등 : 피터·배스넷 (도서관 디렉터)
김정숙(TV한국 아나운서)
상품— 대형윷놀이 셋트
공로상 : 쉴라· 처치마치 (스카보로도서관, 이사장)
상품—보석자개장

이번 행사를 위해 아래단체가 상품들을 기증했다.

오타와 한국대사관—보석함·반가좌상(동상) 2점, 에밀레종(동상) 2점.
총영사관—트로피 1점 (작년 기증한 것, 도서관·영구보존)
토론토 한국무역관—대형 한국인형 2점.
한인와이즈멘즈베타클럽—대형윷놀이 셋트 2점
스카보로도서관—한국떡, 다과류

이 추석놀이 행사는 한국명절과 풍습을 캐나다에 심고자 유현승 중앙도서관 분류과장의 착안·주선과 한인YMCA김창열 총무의 협조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된 것이다.

북한침투 노골화
「조총련」과 유사단체 만들어

(LA지사)미주지역에 대한 북한침투가 날로 노골화, 방공무방비 상태의 교포사회에 새로운 각성이 촉구되고 있다.

정부관계 한 당국자는 17일 최근 북괴는 제67차 민족통일 촉선대회 연합성명서를 미주지역의 교포가정에 직접 배달(우편국소, 인없이) 「고려연방제」등 위장통일공세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미주지역을 상대로 인도주의를 표방한 북한방문 선전공세를 대대적으로 펴고 있으며 북한지령과 자금으로 움직이는 일본의 「조총련」과 유사한 단체를 조직 교포사회를 교란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같은 예로 최근 북한이 북한방문자를 앞장세워 세미나 강연회 매스컴과 교포단체 등에 까지 손을 대 이제는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인 침투의 단계를 넘어 외교적인 차원으로까지 비약하고 있다고 동당국자는 밝혔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강 학 수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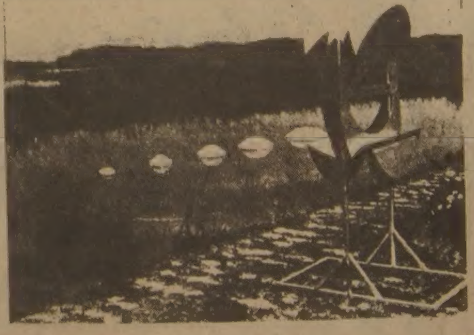
현 대 한 국 작 가 초 대 전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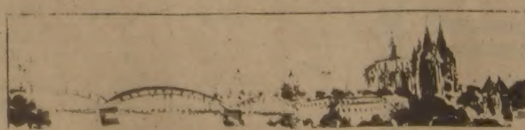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 승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살인전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지하상)
시 간 : 10월 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주최 :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
후원 : 서울대학교 동창회, YMCA,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Y멘즈클럽(알파, 베타)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캐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MS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조촐하고 차원높은 축하식

고신부수상집 출판기념회

◇감명어린 인사말을 하는 저자 고종옥 신부

고종옥 신부의 제4작품 수상·꽁뜨집 「고향에 못 갈지라도」 출판기념회가 지난 19일 저녁8~10시., 약 130명 하객이 모인 가운데 돈밀스의 프린스호텔에서 칵테일 파티를 겸해 성대히 열렸다.

유명한 전직방송인 피세영씨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재래식 축하회 풍습을 타파, 산뜻하고 차원높은 식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토론토심포니의 바이얼린 주역중 하나인 백형선의 바이얼린과 김진숙양의 피아노의 기악 2중주로 축하곡들의 연주가 있었으며, 저자의 작품연혁 소개에 이어 전 아나운서 강종희 여사의 저자작품 「내 무덤을 찾아서」낭독이 있은 후 저자의 인사말로 일단 식순을 마치고, 술과 음식을 들면서 대화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축하객들에게는 이번 저서를 비롯, 전작소설 「사랑의 지도」·「예수 없는 십자가」, 「이세상의 이방인」이 증정되었다.

레이건 한국방문 희망 주미대사 신임장 전달

(와싱턴21일=연합)레이건 미 대통령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21일(월)피력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 계류중인 중요안건들 때문에 언제 방문할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21일 백악관에서 신임유병현 주미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한후 레이건대통령은 한·미가 국교가 정상화된지 1백년동안의 우호적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한국안보 고려해야 「요미우리」지 밝혀

(동경19일=연합)일본의 유력일간지「요미우리」는한국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한국의 60억달러의 대일차관요청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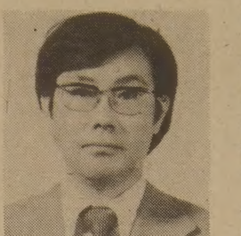
동지는"한국은 최근 수년동안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끼기위해 눈부실만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눈부신 경제적 활동에도불구, 안보때문에 많은 국방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60억달러의 차관이 한국안보에 관련된지출이 아니고 오직 경제협력의 형태로 사용되어져야하며, 한국정부에 차관사용세부조항을 명시해 주도록요구했다고「요미우리」는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일본이 한국의 입장에서한국안보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동지는 덧붙여 보도했다.

"캐나다경제 단기적 불투명"

이수신씨, Y's맨모임 강연



◇강사 이수신씨

지난 18일 토론토시내세라톤호텔 휴론룸에서는 와이즈맨크럽(알파·회장 차선경)월례모임및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30여명의 클럽회원및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빙연사 외환은행 이수신상무는"세계경제 조류와 캐나다경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씨는 이 강연에서 "캐나다경제는 단기적으로 볼때 밝지 못하다"면서"그이유는 캐나다경제의 미국예속화, 경제행정의 비능률성, 금리 불안정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캐나다경제는 장기적으로 볼때 전망이 밝다고 말한다. 에너지등 광산자원등이 풍부, 개발여하에 따라 현 경제침체에서도 빨리 벗어날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현수준의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16~17%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현재 미국의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는 19·5%에 머무르고, 캐나다는20.25%에 머물러 있다.

강연이 끝난후 청중들은 이씨와 질의응답을 펴며진지하게 캐나다경제 전반을 토로했다.

캐나다정부 경제행정의 비능률성을 되묻는 질문에 이씨는"캐나다정부는 연구개발등에 행정적 뒷받침이 충분치 못하다"면서 "지난해 만든 국가에너지 계획(NEP)등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강연은 8~11시, 장장 3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진행됐다.

車를타면 食慾 왕성해진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車와 過食

배나 기차를 오래 타면 운동 부족이 되는데도 배가 쉬 고프다. 바다나 기차여행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어 식욕을 증진시키는 까닭만도 아니다. 배나 기차의 흔들림이 관계되어 있는것이다.

그러한 흔들림이 우리의 부교감신경에 가벼운 자극을 주어 식욕을 증진 시킨다.

배 기차 자동차등의 동요나 진동이 그 사람에게 알맞으면 좋으나 너무 강한 자극일때는 이른바 멀미를 하게된다. 부교감신경의 흥분이 취한 상태까지 진행되면 구토 설사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그런 사람에게 부교감신경 억제제를 쓰면 증상이 가벼워진다.

부교감신경의 가벼운흥분으로 일반 식욕증진 현상은 어업종사자나 교통기관 근무자들이 실감하는 노릇이다. 그런데 자동차를 이용할 기회가 많은 현대인은 누구나가 그런 현상을 체험하게된셈이다. 차를 타니 근육운동아 적어 에너지 소비가 적을텐데 식욕은 왜 왕성해진다. 부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위장의 기능이 높아지고 소화액의 분비도 활발해진다. 그 결과 과식하기 쉽다.

현대인의 운동부족의 원인으로서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다리를 안쓰게된점이 지적되고있다. 하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운동부족에다 겸하여 과식이라는 2중페단이있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노상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식욕증진현상에 기만되지 말고 8할정도의 식사량을 취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손수 운전하는 경우라면 긴장 때문에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억제되어 위장장해를 일으키기 쉽다. 이점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인데 고깃배가 나가지 않는 날은 농사를 짓는다 농사일이 고기잡이보다 훨씬 고되건만 시장기는 배를타는 경우에 훨씬 일찍온다고 한다.

呂卿九 〈醫博〉

공중경보기 사우디판매

미·이스라엘 외교관계 긴장고조시켜

레건정부는 지난주 5대의 고성능 공중경보기(AWACS)를 포함한 85억달러 규모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무기판매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보잉707기를 개조,컴퓨터화한 레이더시설을 갖춘 공중 경보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랍국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 벌거숭이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중경보기를 보유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페르샤만 지역에서 소련의 공세를 억제하는데 숙명적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중경보기 소유가 이 지역에서의 미국입장을 유리하게 할 뿐 아니라 서방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할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해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미국에 살고있는 거물급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워싱턴에서 판매반대운동을 펴고있어 일부 의레건 대통령 측근들은 레건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될까봐 커다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레건 정부는 의회의 친이스라엘 의원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동 공중경보기 사용을 제한할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느정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냐하는 것이 무기판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7개월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졌던 비밀협상에서 양측이 동의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미국… 소련공세억제 이유로 판매추진

거물급 유태인중심 강력한 반대운동

◆공중경보기가 결국엔 사우디아라비아 조종사 및 기술자에 의해 비행되지만 미국인들이 지상 레이더 정보시설을 감시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감시를 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국가에 제공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중경보기를 시리아,졸단등 제3국 상공에 비행시키지 않는다. 공중경보기의 정보탐지는 원칙적으로 페르샨 해협과 동부석유지대,그리고 사우스 예멘,에디오피아등에 국한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중경보기가 이스라엘을 향해 비행할경우 이스라엘에 의해 격추될 위험을 갖고 있다.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공중경보기의 고성능 컴퓨터와 복격목표를 제공하는 특수장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럴경우 사우디 아라비아의 공중경보기가 전투지시를 하려면 육성을 사용해야하므로 미국전문가들이 즉각 탐지할수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중경보기에 대한 .부품공급 및 정비와 비행기보호는 물론 기술자훈련에 있어서도 철저한 안보조처를 취한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모두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을 안고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레건 정부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동 비행기의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를 추진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보다 많은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면서 반대자들을 설득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AWACS를 보유할 경우 정보비행을 하게될 지역들.

「88年올림픽」서울誘致 활발

西獨바덴바덴 IOC총회에 代表6名파견 IOC委員3名 競技시설 현장답사 마쳐

(서울-UPI) 한국은 1988년 올림픽경기의 서울유치를 위해 오는 9월24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에 6명의 대표를 파견한다고 16일 박영수 서울시장이 밝혔다.

이 대표중의 한명이 될 박시장은 서울시는 경기시설의 60%를 완공함으로써 88년 올림픽경기를 개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한국정부는 올림픽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팀이 자유롭게 출국하고 입국할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3인의 IOC 위원들이 이미 경기시설의,현장답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88년 올림픽 경기장으로는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6명의 한국대표 중에는 박시장을 비롯 정주영, 조상호 및 3명의 저명인사로 알려졌다.

흑인·동양인마찰 심각

WP지, 수도권내 흑인지역 교포상인 보도 한인점포수 1천여개, DC만도 3백50개소

미국내 한인 교포사회가 기반을 굳혀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흑인사회와의 마찰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적은 돈으로 소규모 점포라도 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지역에 뛰어든 교포상인들과 이를 이단시하는 토착 흑인사회와의 충돌 부조화는 이제 소수민족간의 사소한 갈등이 아닌 미국내의 하나의 사회문제로 발전돼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뉴욕·시카고 등지에서 일어난 한인 교포상인과 흑인 사회간의 충돌에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 DC의 흑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협화현상을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포스트는 17일자 주간지방판에서 아시아인 기자 1명과 흑인 기자 1명이 흑인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 점포 주인들과 흑인 고객들을 광범하게 인터뷰한 내용의 기획기사를 2면에 걸쳐 크게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국세조사국 통계에 의하면 지난 70년에 2만1백15명이던 워싱턴지역 아시아인 숫자는 10년후인 80년현재 6만8천6백65명으로 늘어났고 77년 조사통계는 워싱턴 DC에서 아시아인이 소유한 식품점·소매상 등 소규모 점포수는 560개라고 밝히고 있으나 워싱턴의 한인실업인협회 이사 존·윤씨는 워싱턴 지역에 있는 한인소유 점포수가 1천개를 넘고 있으며 이중 약 350개가 DC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복덕방을 하고 있는 미국인 벤·아이젠만과 얼·스턴씨에 의하면 워싱턴에서는 8년전인 73년부터 아시아인들이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점포를 사기 시작했는데 이들중 대부분은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워싱턴지역에서 가족단위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점포가격은 대개 6만~8만 달러이고 이중 30%를 다운페이하면 점포를 인수받을 수 있는데 범죄발생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점포 가격은 대개 3만 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실제로 D.C.에 있는 24개의 7-ELEVEN 스토어중 11개가 아시아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정도인데 흑인지역에 있는 많은 아시아인 점포 소유주들은 지역흑인들과 돈과 영역에 관한 마찰을 자주 빚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사는 흑인지역에 점포를 가진 한국인들은 항상 강도·절도 등의 공포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GA AVE.에서 조그만 식품가게를 하고 있는 33세의 한국인독신녀 SUE KIM양은 자기가 이 가게를 시작한후 지난 4개월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절도를 당했으며 이중 권총강도 피해만도 6차례나 된다고 말했다.

김양은 하루에 3건의 강도를 연달아 당하는 날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할 수 없이 이지역을 떠나기 위해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다고 푸념했다.

항상 강도, 절도공포속에 장사 하루에 3번 강도 당한 수 김씨 현 곤경의 책임 자신에도 있어

그러나 이 가게의 고객이었던 30세의 한 흑인을 김양의 이같은 곤경은 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번은 내가 소다 2개와 칩 1봉지를 사서 봉투에 넣어 달라고 하자 김양은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봉투를 던져주었다고 말했다.

이 흑인고객은 흑인지역에 있는 모든 아시아인 소유가게에서 그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D.C.경찰국 도범전담반의 조 ·카크릭 형사는 아시아인 소유점포에서 발생하는 강도·절도사건이 다른 점포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이유는 범인들이 아시아인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경찰에 알려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아시아인 소유점포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그들의 영어가 신통치 못해 다른 직종을 갖는것보다 소규모 점포라도 내어 열심히 벌어 미국인들을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은 언어때문에 손님들과 다투는 예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충돌외에도 흑인들은 교외고급 주택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많은 돈을 가져와 자기네 동네에 있는 점포를 사서 낮에는 이곳에서 돈을 쓸어모아 밤에는 자기네들 집이 있는 교외로 가버린다고 불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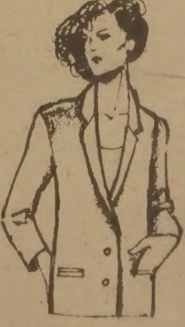
DC의 S.E.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한 흑인은 한국인들이 자기 동네에 올때 들고 오는 수트·케이스에는 옷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돈·금·은 등이 가득 채워져 있으며 이들은 통일교회나 미국정부로부터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한인교포는 한인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빈손으로 남의 가게에서 2~3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값이싼 흑인지역에 있는 점포를 사게 되며 교외에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흑인지역에 점포를 갖고 있는 일부 한인들은 이 지역사회와 잘 융화해 나가는 예도 있으며 또 이 지역에 들어오는 한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흑인들도 있는데 한 흑인점포 주인은 자기 이웃에 있는 한인소유의 한 점포는 당초 이점포를 팔려고 내놓았을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한국인이 사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아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534-2003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목돈 만드는 신용적금
목돈 꾸는 적금대출

적금월부금표 (단위 $)

계약고＼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1,000	79.30 (951.60)	51.48 (926.64)	37.58 (901.92)	29.25 (877.50)	23.69 (852.84)
3,000	237.90 (2854.80)	154.44 (2779.92)	112.74 (2705.76)	87.75 (2632.50)	71.07 (2558.52)
5,000	396.50 (4758.)	257.40 (4633.20)	187.90 (4509.60)	146.25 (4387.50)	118.45 (4264.20)
10,000	793. (9516.)	514.80 (9266.40)	375.80 (9009.20)	292.50 (8775.00)	236.90 (8528.40)
30,000	2,379.00 (28,548.00)	1,544.40 (27,999.20)	1,127.40 (27,057.60)	877.50 (26,325.00)	710.70 (25,585.20)

현행예금 금리표

정기예금

30~89일	19 1/4%
90~179일	19 1/2%
180~364일	19 1/4%
1년 이상	19%

일반예금 18.5%

온타리오주법과 보험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 신용조합
KOREAN TORONTO CREDIT UNION LTD.
712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L4
(416)533-9387,8
야간 : 921-0155

스토아매매

조그만 시골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아
Gross Sales는 $368,000넘음. 2 베드룸 아파트와 같이 있음. 몰개지 8%. $180,000+스타

3종류 비지네스가 한곳에 :
도넛츠, Takeout Chicken과 햄버거, 아주바쁜 오릴리아 하이웨이 북쪽, 새로운 스타일에 5 베드룸과 그의 다양함, 3년된 좋은 가족 비지네스. $250,000

타운에 있는 그로서리와 버라이티 스토아
그로스 : $310,000(일년에), 3 베드룸 집, 마당도 넓고 아주 바쁜 하이웨이 그리고 관광지임. $129,000+스탁

연락처 :
BETTY CLEARY (705) 325-6028
IRVEN REP D (705) 325-6069
DEGRAW

Walter Deam Real Estate
107 Mississauga St.
Orillia, Ont.
(705) 325-6193

재미학자 6명 북한 방문

미국무성서 확인, 지난7월 2주간 단체여행

"이미지 개선위해 지난해부터 대폭허용"

[뉴욕 지사]

재미 한국인 학자 6명이 지난 7월 단체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음이 국무성에 의해 8일 밝혀졌다.

북한 실정에 밝은 국무성의 한 관리는 서울에서 청취된 평양방송이 한국인 학자 6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이 현재 북한을 방문중이라고 보도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을 다녀온 재미 한국인 정치학자 6명중 일부는 출발전 국무성에 그들의 북한 방문사실을 통고해 왔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이 관리는 이 학자들이 북한에서 2주일정도 체류했다고 말했으나 이들의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이 국무성 관리는 지난해부터 북한당국이 재미 한국인들의 북한방문을 대폭 허용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왜 재미교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리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 그들의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땅굴발견, 판문점 미군 살해사건, 최근의 미정찰기 조격사건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야만적이고 공격적인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같은 이미지를 씻기 위해 재미동포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리는 분석했다.

북한은 이 학자들의 단체방문에 앞서 일부 재미학자와 교직자의 개별방문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학자들의 단체방문은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단모집과 함께 재미 교포사회에 대한 북한측의 새로운 동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가 섬유협정

섬유수출 증가 난망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섬유협정을 잠정적으로 체결했다고 20일 한국측 대표들이 밝혔다.

지난 16~18일 오타와에서 양국대표들은 그동안장기간 끌어오던 섬유회담을 끝내고 82년부터의 한국섬유수출량 쿼터등을 잠정적으로 체결했으나 내용은다음주 제네바에서 있을 다국섬유협정(MFA)회담때까지 발표를 보류하기로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81년 말로 현행협정이 끝나므로 신협정이 시급히 요구됐었다.

회담에 참석한 한국관리들은 협상내용이 한국에유리했느냐는 질문에 단순히 양국에 적절한 협정이라고만 했다.

지난6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회담에서는 한국측이 요구한 시장성 높은 특정섬유의 쿼터문제로 결렬됐었다.

이번 회담에서 캐나다측은 현재 MFA규정인 6%의 쿼터증가를 무시, 이보다 낮은선을 주장했다고알려졌다.

다국적 섬유협정은 섬유류 수입국인 선진국과 수출국인 개발도상국들간의 수입쿼터 문제등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국제섬유회의이다.

현재 MFA는 매년 6%씩 섬유쿼터를 늘이기로했으나, 캐나다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협정을잘지키지 않는다고 한국무역관리들은 전했다.

캐나다는 섬유산업도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으나 선진국의 대부분은 지나친 노동력등을 이유로 후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오타와 회담에는한국측에서 상공부 유덕환무역국장외 6명과 캐나다측에서 상공부 C·D 아더수입정책관외 4명이 참석했다.

금년도 한국의 캐나다수출목표액 약 5억5천만달러중 섬유가 약1억3천만달러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한국의 수출대상국중 10위 이내에 든다.

<새로 나온 책>

서울농대동창회 "상록"3호 출간

캐나다의 서울대 농과대학동창회(회장 신동운) 는 회지「상록」제3호를 냈다.

수기, 서간, 수상, 시, 식물연구논문, 동창소식등을 4×6배판 32면에 담았다.

현재 동창회원수는 구재서, 조한철, 허규갑, 황용현씨등 74명이다.

상점경영의 묘미 ⑦

업무분담과 훈련

RSI 연구소장 피터·태사

무슨일이든지 누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지침이 있어야한다.

아마 조그만 상점을 경영하는데 이러한 지침마련을 매일매일 해야된다는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아무리 조그만 상점이라도 혼자 전부 한다는것은 더욱 힘든일일 것이다.

어떤것이 상점경영에 필요한가 알아보자.

구매, 판매, 인수, 가격책정, 진열, 상점정비, 장부정리등 많은것이 있다.

이 많은 업무를 단순히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하는 구두지시만 갖고는 충분치 않을것이다.

첫째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야한다. 한계가 결정됐으면 적어놓아라. 경영주당신의 기억도 새로와 질것이며, 한계가 명확해질 것이다. 다음에 누가 그 업무에 적절한지를 정해두어라.

업무분담이 정해 졌으면 일주일내지 한달간격으로 이 업무가 제대로 행해지는지 검사 평가해보자.

예를들어 물건인수와 가격책정을 맡고있는 사람이 정해졌다고 하자. 당신은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그의일을 평가하고 있는지의 모든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당치 않으면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상점경영주가 신경을 써야할곳은 물건을 파는분야다.

상점의 어떤물건이 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쟁스토어의 가격은 어떤지 등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할 것이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⑭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흔 옮김

우리는 그가 조금밖에남지않은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것을 마음속으로 승락한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전혀 도울수가 없었고, 나눅이 생가죽을 꺼내와서 끝에다가 올가미를 맬려고 했지만 그녀의손이 하도 떨려서 매지를 못하더군요.

드디어 그녀는 그것을집어던지고 두아이들 사이에 있는 선반위에 엎드려 통곡을 했읍니다. 그래서 엘라이투트나는 좀더 생명을 유지할수 있었읍니다.

우리들이 고기를 먹지못한지가 3주일이 넘어서 캠프주위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배설물, 오래된 뼈다귀, 또는 개들을 먹고살았읍니다.

드디어 오텍과 오울릭툭은 나의 이글루로 찾아와서 동쪽으로 몇일만 가면 한 호숫가에 백인이 지난 여름에 이글루를 짓고있드라는 소문을 들었노라고말했지요. 그와 오울릭툭은 이글루를 버리고 백인을찾아 리틀힐스를떠나 동쪽으로 갔읍니다. 나는 남아있으면 틀림없이 죽을것같아서 그들과함께 떠나기로했었지요. 그러나 앙그레알락은 물어보니까 그의부인이 죽어가고 있으므로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둘수가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이글루에는 개가 모두 3마리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잡아 내장과 가죽까지먹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떠날충분한 힘이 생겨났지요. 떠나던 날은 처음으로 햇볕이나서 봄처럼 따뜻했었읍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고남자들은 기운을내어 잠자리용으로 사슴가죽을 들고갔고 또 아이들을 업고 갔읍니다. 여인들과 늙은이들은 몸만 갔지요. 그것으로 족했으니까요.

할로·레이크까지 왔을때 우리는 거기에 할로미키그리고 야하의 가족밖에는볼수가 없었읍니다.

헥카우와 카텔로는 그들의 죽은 아내 에프크와 옥끼눅의 시체를 이글루에남겨둔채 살아있는 가족을데리고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지요. 헥카우와 카텔로는 평원으로 혹시 사슴이 겨울을 지내리라고 믿어지는 멀리있는 산골짜기로도망 쳤답니다.

할로레이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들이 사는동안 이들을 다시볼수 있으리라고 생각치 못했지만봄이오기전에 몇마리의 사슴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카쿠미레이크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으며, 그들은 아직도 충분한 고기를 저장하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까지 가서 식량을 구걸해 보아야 소용이 없는줄알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카쿠미는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등을 돌릴것이 뻔했으며, 나가서는 우리에게 나쁜귀신이 들리게 할지도 몰랐거든요.

우리들은 할로 꾸마닉에 남아있던 다른 세가족에게 도움을찾아 동쪽으로 가고있다고 말했드니 그들역시 식구들이 이미 죽은사람도 있었고 또 다 굶어 죽어야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전혀 없었으므로 우리와 동행하기로 따라나섰읍니다.

(계속)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트루먼大 영어연구원장】

I CAN'T THINK OF IT OFF HAND.

report를 써 내는데 중요한 부분에가서 막혀서 꼭 담당교수에게 연락을 해야만 할일이 생겼다。이때 classmate 에게 「너 우리 교수집 전화번호를 아느냐?」Do you happen to know our professor's home phone number? 라고 물었다。그때 친구는 I can't think of it off hand. 라고 얘기하였다。이때off hand는 「지금 당장에」「문득」이러한 뜻이다。「지금당장 전화번호가 떠오르지 않는다」란 얘기다。

【예】당신은 social security number 를 아세요?

Do you know your social security number?

「당장 생각이 퍼뜩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고싶은 경우에는 I can't think of it off hand. 혹은 off hand를 앞에 내어서 Off hand, I can't think of it. 하면된다。

A: What's Jack's phone number?
B: I can't think of it off hand. why?
A: I have to see him before he leaves his office.
B: Why don't you call his mother and get his number?
A: I tried, but no one answered-
B: Did you look in the directory?
A: 잭의 전화번호가 몇번이죠?
B: 생각이 퍼뜩 떠오르지 않아요。왜 그러시죠?
A: 그가 사무실을 떠나기전에 만나야만 되겠어요。
B: 그의 어머님께 전화해서 그사람 전화번호를 알아내지 그러세요?
A: 전화해 봤지만 아무도 안받던데요。
B: 전화번호부책을찾아보았나요?

본 칼람 담당자의「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캐너더·뉴스, 미국전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 「특수발음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있음. 또한 한국및 미주사상최초로 제작된 「영어회화 비디오」는 미국현지 생활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생활영어와 발음교정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음.

구입처: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1·2·3권
책, 카세트, 비디오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PM- 4AM
토~일: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977-9734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교민 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늘한 바람이 옷깃에 스며들어 바뀌어 가는 계절을 실감케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바뀌는 계절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이민의 삶이 그저 막연히 저편으로 밀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때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즈음 우리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양로원 건립에 첫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져, 여기에 작은 모임을 마련했읍니다.

이번 자선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중진화가 여러분들이 우리 건립위의 적극호응하여 그분들의 정열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국의 바쁜 생활 뒷그늘에 가리워 자칫하면 소외되기 쉬운 외로운 노인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노후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주며, 따뜻이 감싸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되여집니다.

교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는 삭막한 이민의 삶에 뜻깊은 사랑과 희망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읍니다.

끝으로 이번 자선 전시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분 그리고 후원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특설회장)
시 간: 10월8일(목), 9일(금):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2시~ 〃
〃 12일(월), 13일(화): 〃 6시~ 〃

양로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일동

특별집회

강 사: 문 동 환박사
시 간: 1981년9월27일 (4시30분)
장 소: 임마누엘연합교회 (63 DUNBLAINE AVE.)

임마누엘 연합교회 남신우회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SEWLL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5491

구 인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8, MRS. THOMAIDIS

정원사 HELPER구함 : 연령제한 무
풀타임 또는 파타임
☎ : 653－8173 MR. 강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돈밀과 에그린톤지역
☎ : 425－6068

도나스 샵에서 일하실 풀타임
키친 헬퍼 구함(여자분에 한함).
☎ : 481－3677 미세스 박

경험있는 헬퍼구함 :
일요일만 근무
☎ : 690－4512 75 EASTDALE AVE.

쥬스바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5시 이후 연락바람
☎ : 438－0403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원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풀타임 카운터 헬퍼구함
EATON CENTER내
☎ : 979－9283

공장에서 일하실 경험 있는 분 구함 :
전기 어셈블리, 전기 테크니션, 플라스틱 몰딩기계
어프레이터 직접와서 문의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Corner & Browns Line)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급매 : 가게 처음하시는 분에게 호 조건임
ASKING : $10,000＋스탁(물개지가능)
2727 LAKESHORE BLVD. W.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세 탁 소 급 매
☎ : 653－6336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 425－1836 MR. 정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절 호 의 찬 스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십니까. 카페테리아식 고급 레스토랑으로 낭만적 분위기이며 좋은 비지네스 입니다.
미시사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매상 4천달러이며 매상은 급상중, 년간 8만달러 수입. 주 5½DAY OPEN
☎ : 270－0679

COUNTRY STYLE 도나스샵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FISH & CHIP매매
적은 자본으로 사업체를 찾고 계신분에게 적격. 모든 경비공제후 연 순수익 30,000달러이상, 주49시간 영업
일주에 필요한 인원은 1½사람.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633－6281 2865 JANE ST.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건물및 비지네스 매매 : 주매상 6500달러이상
스토아 매매 : 4200달러이상
☎ : 535－7200 MR. 김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힐)
1272 YONGE ST. MR. INGHAM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올게지 : 13½% (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PH
☎ : 707－743－3152 MR. 유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구 혼

28세 이상 신원이 확실한 여성원함 관광방문녀도 무방함
MR. 강 일 영
1015 ROOSEVELT RD. #303 MISSI.ONT.L5G3Y7

재색과 학력 겸비한 29세 미혼여성 중매
유럽에서 고교와 대학졸업, 현재 간호학과 졸업반
(이민자녀)
30～45세 사이의 학력있는 분의 연락바람
연락처 : T. CHOI 1355 SO. HOPE ST. #311
L. A., CA. 90015 U. S. A.

집·방세·하숙

아파트 서브렛 : 렌트 $259
입주 10월1일 LAKESHORE와 MIMICO
☎ : 252－8823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6－0609
R) 242－5194 여 정 봉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 타 미용실 미세스 · 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6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헬 렌 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 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이인숙)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기 타

SOMÉ JEWELLERY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디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쏘메쎄라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 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구독신청은 533－2361

서울大、行事주관 학생에 "脫線안한다" 覺書받기로

서울대는 18일 앞으로 학생자치활동에 따른 각종행사를 열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학생이 행사기간중에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무세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 방침이다。

서울대 당국자는 『시위기를 방지 학생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것이 학교측의 확고한 방침이지만 학생들에게 1백%의 자율을 허용할수만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각서를 받아둠으로 학생회의 탈선을 예방하려는것」이라고 밝히고「그러나 각서상의 책임이 사실상 어떤 요구나 처벌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책임의식을 느껴 의도했던 행사를 무사히 치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모눈종이 위의 生 <205>

趙善作 作 禹慶熙 畵

·돌개바람불다 ⑧

윤나미와 나는 마실 것을 더 시키고 오랫동안 식당에 앉아 있었다。이따금씩 차창 밖의 풍경에 눈을주기도 하고、새로운 도시가 나타나면 그곳에 관해서 아는 것을 교환하기도 하고、여행이야기、등산、골프、테니스、새기르기 등에 관해서 이것 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다。

빈약한 학력이나 성장 과정에 비해서 윤나미는 뜻밖에도 취미가 다양하고、여러 분야에 걸쳐 상식이 만만찮았다。근교(近郊)의 등산은 밤에 하는 게 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든지、카나리아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해서 담배 연기에도 곧잘 질식해 죽는다든지、엘비스·프레슬리의 무덤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하루 몇만 명이라든지 하는 등의 이야기는 나로서는 처음 듣는 것들이다。

내가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자「재미있게 읽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읽어야 할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곤혹스런 표정을 보였는데、그녀는 신간(新刊)도 빠뜨리지 않고 읽어 나가는 부류의 독자에 속했다。

식당칸은 점심 시간에도 그리 붐비지 않았다。그것은 열차가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이 점심 시간 조금 지난 시간이 되기 때문인 모양이었다。윤나미와 나는 점심 시간 조금 지난 시간에、그러니까 열차가 부산 가까이 이르렀을 무렵에야 일행에게로 돌아왔다。우리가 돌아오자 권여사는『돌아올까봐 조마조마했다。어디서 홀짝맞은 얘기들만 모아 가지고 가십계의 악담이니 뭐니…」하고 유감록을 훑어 보았고、유감록은「악담이 아니라 거섭이요、큰 박、가십계의 거성 아시겠읍니까?」하고 웃음의 끄리를 아무리지 못했다。또우리들에게는『재방송은 없어。없으니까 부산에 가서라도 아예 조르지들 말라구。알겠지?」하고 눈을 부라려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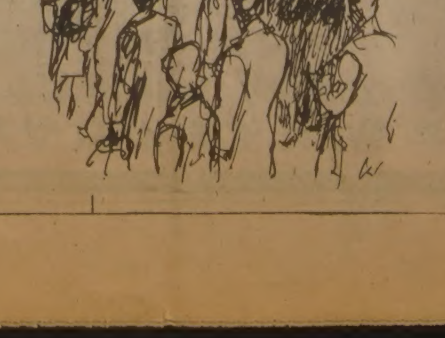
그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우리들이 돌아오자 충혈된 눈을 잠깐 떴다 감았을뿐、여전한 자세였다。식당칸에서 윤나미와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줄곧 그에 관해서 생각했다。뜻밖에도 내가 따라나선 이번 여행에 관해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에 관해서 생각한 주제는 대체로 그런 것이었는데、부산에 닿자마자 그는 내게 은밀히 어디 다른 곳으로 떠나달라고 요구할수도있다고 나는 생각했다。또 그는 그 자신이 일행에서 탈출해 어딘가로 잠적(潛跡)해 버릴수 있다고도 나는 생각했으며、바닷가나 어딘가 으슥한 장소에서 그가 나를 구타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아무튼 나는 특단의 상상이 불청객의 신분인 나를 계속해서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며、좋은 쪽의 공상、일테면 내가 그의 충실한 협력자로 항상 그의 옆에서 시중을 드는 따위의 공상이나、정룡에서 기도했던 똑같은 일을 일행 모르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따위의 공상은 여지 나타났다가도 나쁜 쪽의 상상에 밀려 금방 사라지는 것이었다。그런데 부산에 도착하자 내 나쁜 쪽의 상상은 금방 실현되었다。

열차에서 내려 역구내를 빠져 나온 뒤 어느틈에 그와 나는 나란히 걷게 되었는데、그가 예의 그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연 것이다。

『세호가 여기 어디 왔다지?』

나는 귀 가까이에서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너무도 놀라 멈칫섰다。열차에서 내리며 나는 그와 나 사이에 그런 기회가 생길까봐 그의 눈치를 살피며 자꾸만 떨어졌었는데、어느 틈엔가 그가 내 옆에 다가왔던 것이다。게다가 그는 세호의 이름까지 입에 올린 것이다。



所得稅額 평균30% 輕減

근로所得 定率控除 도입
최고稅率 62%서 58%로

政府, 9개稅法改正案·敎育稅法案 확정發表

정부는 주로 대기업등에대한 조세감면제도의대폭축소, 중산층이하 근로자등에대한 세부담 경감, 1인1주택 상속공제신설등을골자로한 稅制改編案을 확정, 18일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특별소비세법, 방위세법, 國稅기본법, 전화세법, 稅務士法등 9개이며 이밖에 교육세법이 새로 제정된다. 李承潤재무장관은

올해 세제 개편작업은 80년대 제2經濟跳躍을 뒷받침하고 탈세없는 정의사회구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공평과세실현을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월50만원이하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약30% 경감되도록 각종공제제도와 세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주도에의한 기술및 인력개발등세제면에서 지원키위해 기술개발투자에대한 각종 공제제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면

근로所得稅額控除制 신설
1人1住宅엔 相續稅공제
韓銀등 81개특수法人課稅

이번 세제개편으로 배우자 부양가족등에 대한 人的控除(5인가족기준 월15만원)수준은 그대로두는대신 현행定額근로소득공제와보너스공제를통합한 定率공제제도를 도입, 봉급이 올라가면 공제액도 따라서늘어남으로써 물가상승에 대한 세금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근로소득 공제율은 보너스를 합친 연간소득액이 82만원이하일때는 82만원전액, 82만원초과 3백60만원이하는 82만원이외에 나머지 소득에대한20%, 3백60만원초과 소득자는 10%를적용하며 최고로 1백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세율은 최저세율 6%와 17개단계는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만 62%서58%로 내렸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稅額控除制를 신설, 월급여액 20만원 이하는 소득세액의 20%를, 20만원~30만원계층은 10%를 각각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월소득 50만원이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던 보험료공제 근로학생공제 교육비과 세공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장해자공제액을 연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자아닌 개인소득자들에게도 기부금을 냈을때는 세금대상서 빼주기로했다.

또한 조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법인세, 감면등 직접감면은 폐지되는 대신 특별상각이나 투자준비금제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 14개 중요산업 지원대상은 종래 14개업종중 비철금속제련업, 화학비료제조업, 發電사업, 환경보존용품제조업등 4개업종은제외하고방위산업, 지방이전사업, 광업, 축산업등을별도지원키로함으로써 전자공업 鐵鋼공업(선철, 특수강·鑄造제강), 합공업, 조선공업, 나프타분해등 6개업종만 계속 지원을 받게됐다. 또한 수익이 있는 기업은 최소한의 세금(8·1%)을 내도록하는 最低限稅(Minimum Tax)를 도입하고 국영기업체등 81개특수법인도 최소 5%의 세금을 내도록했다.

법인세법은 일반법인과 외형 5천만원이하의 공개법인에 대해 각각 2% 포인트씩 세율을 내리는 반면 법인세 소득세가 1천만원이상인 세금의 分納制를 허용하고 기업접대비 한도액을조정했다.

정부는 또 상속세의 탈세를 막기위해 최고세율을 현재 67%에서 60%로 내리는 한편 상속인과 사망자가 함께살던 4천만원이하 (내무부 시가표준)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공제해주며, 농어촌후계자 양성을위해 농지(6천평) 草地(3만평) 山地(〃)의 상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한도 내서 상속공제를 해주도록했다.

이와함께 상속세는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시효연장하고 5천만원이상 재산을 사망전 1년이내에 처분했을때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키로했다. 이밖에도 기술개발 촉진을위해 기술개발시설 투자에대해서는 투자액의 6~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VTR등 기술개발선도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크게낮춰 內需기반을 조성해 주기로했다.

◇주요 稅法改正 내용

法別	구분	現行	改正
소득세법	稅率	6~62%	6~58%
	근로소득공제	5人가족 年106만원	82만~150만원
	보험료등공제	月소득50만원이하적용	모든근로자에게擴大
	최고세율적용	年6,000만원	年5,500만원
	기부금 공제	사업소득자에게만인정	개인소득자도추가인정
	장애자 공제	年12만원	年24만원
	소득공제방식	定額	체감적定率
법인세법	세율	年5천만원이하25%	23%
		〃 초과40%	38%
	증자소득공제	증자기간81년末	82년末까지로
		공제 〃 83 〃	84년 〃
	分納制度	—	신설
	접대비	기초300만원 收入金額의0·2%	600만원으로 0·1%로引下
상속세법	세율	7~67%	7~60%
	住宅控除	—	신설 (4,000만원한도)
	農地草地山地상속공제	—	일정한도내상속공제
	소멸시효	5년	10년
	무신고	가산세없음	10%가산세
	指定制 상속	상속시時價적용	課稅時시가적용
		—	엄격규제
租稅감면규제법	重要産業감면	대상14개업종 5년간직접감면	6개업종으로 축소 化學肥料등은 정상課稅 투자준비금제 신설
	最低限稅	—	신설 (세율5~8·1%)
	海外建設	5년간50%감면· 重裝備특별상각30%	특별상각擴大 준비금·소득공제적용
	鑛業	5년간감면 探鑛준비금	특별상각(50~100%) 투자준비금 인정
	畜産業	5년간감면 종합소득세감면	5년간소득공제(50%) 草地상속공제인정
	山林개발	조림후20년간면제	5년이상造林은 무기한면제
	外航사업	法人소득세면제	課稅전환 (특별상각·준비금인정)
	技術및 人力개발	기술개발비용을 一時損金산입 준비금한도소득의20% 전문기술용역감면	10%稅額공제추가 收入의1%를 사용가능50%소득공제로 기계, 전자등은 강화 —
	中小企業	제조업·광업만시설改替준비금 특별상각50%	모든 업종에 擴大적용 우선 育成업종은100%
	工場의 지방이전	양도차익면세 직접감면등	투자세액공제 또는 一時상각(50%)중擇一
	방위산업	重要산업감면	중요산업감면폐지 (대신간접감면)
	투자 控除率	國産10%, 外産8%	外産은 6%로 引下

◇소득계층별 勤勞所得稅率

現行		改正案	
階級	稅率	階級	稅率
120萬원以下	6%	120萬원以下	6%
120 초과	8	120 초과	7
180 〃	10	180 〃	8
240 〃	12	240 〃	10
300 〃	15	300 〃	12
360 〃	18	390 〃	15
450 〃	21	480 〃	18
540 〃	24	600 〃	22
690 〃	28	840 〃	26
840 〃	32	1,140 〃	30
1,080 〃	36	1,500 〃	34
1,320 〃	40	1,900 〃	38
1,800 〃	44	2,400 〃	42
2,400 〃	48	3,000 〃	46
3,300 〃	52	3,700 〃	50
4,500 〃	56	4,500 〃	54
6,000 〃	62	5,500 〃	58

蘇、波政府에 超強硬경고
"反蘇선전 더이상 默過할 수없다"
波정부도 對自由노조 강력鬪爭선언

【바르샤바18日AP=聯】소련은 18일 폴란드공산당과 자유노조간의 긴장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對폴란드경고성명을 발표, 소련지도층은 소련을 겨냥한 악의적인 反蘇선전과 적대행위를 더이상 묵과할수없다고 위협하고 폴란드지도층은 단호하고도 신속한조치로써 그와같은 反蘇행동을 저지해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된 이경고성명은 폴란드주재 소련대사 보리스·아리스토프에 의해 스타니스와프·카니아 폴란드공산당 1서기와 보이체흐·야루젤스키수상에게 전달됐으며 관영 PAP통신에 의해 이날 전문이 공개됐다.

소련은 폴란드사태 발발이후 지금까지 폴란드지도층에 보낸것중 가장 강경한 이 경고메시지에서 폴란드내의 反蘇운동이 아무런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같은 위험한 계에까지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폴란드당국이 이같은 反蘇운동에 더이상 관대할경우 이는 양국관계를 해칠뿐아니라 맹방에대한 의무와 폴란드국익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은 따라서 폴란드의黨과 정부가 즉각 단호하고도 철저한 조치로써 소련을겨냥한 악의적인 反蘇선전과 적대행위를 중지시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는 폴란드당국의 관대한 조치로인해 공공연한 反蘇캠페인이 폴란드 곳곳에 만연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소련공산당과 정부는 이같은 反蘇운동이 이미 위험한계에 다달했음을 폴란드지도층에 환기시키지 않을수 없다고말했다.

民正 政策委의장 羅碩昊씨
豫決委長에 鄭在哲씨 內定

民正黨은 18일 공석중인 黨정책위의장에 羅碩昊의원을 임명하고 국회豫算決算위원장에 鄭在哲의원을 내정하는등 지난번 돗자리사건과 관련된 黨職개편의 後續조치를 단행했다.

民正黨은 또 國日의원연맹간사장인 金潤煥의원과 돗자리사건에관련 물러난 李大淳의원의 정책위부의장직 사표를수리하고 후임에 孟殷在 趙正濟의원을, 사무총장보좌역 李在淳의원을 청년국장에 임명했다.

民正黨은 이밖에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에 朴翊柱의원을, 黨중앙위 산업노동 분과위원장에 李龍鎬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羅碩昊 정책위의장 약력 ▲全南 潭陽출신·47세 ▲서울法大卒 ▲高試 行政·司法科 합격 ▲서울 民·刑事地法, 서울高法판사 ▲변호사 ▲8代의원 (新民) ★인터뷰2면

◇鄭在哲 국회 예결위원장(內定) ▲江原 高城출신·53세 ▲東國大卒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專賣청장 ▲신용보증 기금 이사장 ▲韓一銀行長 ▲民正黨 創黨준비위財政委員長 ▲黨 중앙위 부의장 ★인터뷰

◇孟殷在 정책위부의장 ▲忠南 牙山출신·47세 ▲成均館大卒 ▲한국교육공사대표 ▲1·2期 統代의원

◇趙正濟 정책위부의장 ▲慶南 馬山출신·46세 ▲서울法大卒 ▲高試 司法·行政科 합격 ▲仁川·天安支廳·서울地檢검사 ▲변호사

서울市 敎育監 具本錫씨 選出

서울시 교육위원회 (회장 朴英秀서울시장)는 오는 28일 임기만료되는 李昌鉀서울시교위 교육감의 후임으로 具本錫 창덕여고교장(56·사진)을 18일 선출, 문교부에 추천했다. ★얼굴2면

◇고침=18일자 3판 (일부지역) 1면 각대학전형요강기사중 高麗大는 학과별모집이아니고 서울大와같은 계열및 학과혼합모집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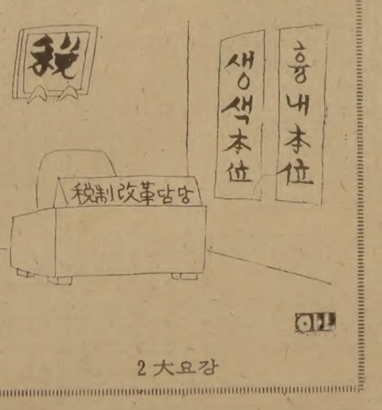
救助작업중인 레바논의 PLO本部 폭파現場

◇17일 레바논의시돈港 중심부에있는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와 좌익회교 민병대 통합사령부 건물근처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사들이 진화및 구조작업을 벌이고있는 모습. 【남부 레바논17日AP電=聯合】

베이루트서 또爆發사고

【베이루트18日AP=聯合】베이루트 남서부 교외에서 18일 하오 또다시 폭발물이 장치된 자동차가 폭발하는바람에 3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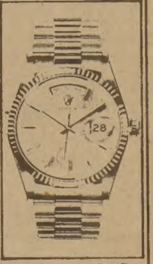
2大요강

地平線

『신고산이우루루 함흥차떠나는소래 구고산 큰애기 반보찜만싼다』-평생에 동네박 나들이가 꿈이었던 한 세대전 아가씨들이 기차 가는 소리에 바람이 난다는 노래였다. 석탄을 때는 기관차가 숨가쁘게 고갯길을 기어오르던 시절의 얘기다. 그러나 이땅에 철길이 놓인지 82돌을 지낸 지금 증기관차는 부무러내 뽑는 기관차는 관광열차로 나남게 된다. ▼말이 기차지 철길위를 달리는 기차는 지난날의 석탄을 때는 기관차와 같은 신세가 될 날도 멀지않다. 10년에서 20년뒤에는 공중에 떠서 손살같이 달리는 기차가 제트기보다 빨리 세계의 대도시 사이를 누비게 될 것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로버트·솔터 박사가 고안해낸 기차는 예를들어 1시간에 9천6백km를 달리게 돼있다. ▼1시간에 9천6백km라면 지금의 제트기보다 10배나 빠른 속도가 된다. 미국의 동쪽 뉴욕에서 서쪽끝 로스앤젤레스까지 눈깜짝하는 사이 54분에 가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서독·일본등 세계각국이 개발경쟁에 나서고있는 이 날으는 기차는 모두가 똑같은 이치로 움직이는 것이다. 땅위에 강력한 전기 자석을 깔고 그 힘으로 날으는 것이다. ▼미국판 날으는 기차는 지하에 뚫린 굴속을 달리는게 특징이다. 비행기의 10배나 되는 속도나지만 그만큼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게 흠이다. 이에 비해 17년째 스피드 기록의 왕좌에 서온 일본은 프로펠러 비행기의 속도라고 할수있는 시속 5백km를 목표로 하고있다. 콘크리트속에 깔린 강력한 전기磁石의 힘으로 10cm쯤 떠서 달리는 매글레브란 기차다. ▼『날으는 기차』의 시초가 될 90년대나 2천년대에 앞서 세계는 지금 초고속열차의 스피드경쟁단계에 있다. 초고속열차의 선두주자는 두말할것도없이 일본이다. 17년째 東京-大阪사이를 달리고있는 소위『탄환열차』는 시속 2백10km. 이에 맞서 프랑스에서는 24일 TGV라는 초고속열차가 파리-리옹사이를 시속 2백60km로 달리게된다. ▼프랑스의 TGV는 시속 3백77km까지 낼수 있게 설계돼있다. 83년까지 87개의 TGV열차를 위해 새철길을 깔작정이다.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이 계획하고있는 서울-대전사이의 고속전철계획에 맞붙었다한다. 비좁은 철길이 종로통보다 붐비고있는게 세계에 뒤져가고있는 우리의 실정이다. 한해 1천6백억원이 넘는 적자(81년도예상)만에 허덕이는 철도가 뒤지고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볼일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63
은: 온스당 US 10.4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①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800. 렌트 $400. 리스1년+5년
ARBITRATION CLAUSE 있음(히팅은 주인부담)
ASKING : $44,000

②버라이어티 스토아 맡아서 일하실분 구함.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사 진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시작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사용해 보십시요.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 wedding coverage
창의력 넘치는 사진들, 각종 앨범 자유선택, 캐나다 최대의 Lab에 현상의뢰, 정식교육받은 사진기사 담당.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S, 고국정경, 참신한 현대식 디자인등 장식용 사진다수. (위탁판매점 모집)

무지개 칼라-
438-4435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금주의 새 리스팅

도넛샵: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샵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게지 잡아줌.
가격 :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附價稅 왜 손질 못했나
法人稅등 稅率인하도 미흡
"景氣부양에 逆行우려"
稅制개혁을보는 經濟界의 反應

경제계는 공평과세확립과 세부담 경감을위한 이번 세제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선 환영의뜻을 나타냈으나 法人稅率등 세율인하가 작아 근로자보호및 경기부양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기술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기업의 재무구조건실화를 저해하는 紙上配當稅를 전혀 손질하지않고 말썽많은 附價稅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번 세제개혁안에대한 경제단체들의 논평이다.

"企業재투자·中産層보호육성 外面"

基本방향엔 贊成

▲商議=세율구조의 적정화, 세부담의 공평성등에 중점을 둔 기본방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근로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킨것도 환영할만하다. 다만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전반적인 세율의 인하가 미흡한것이 유감이다. 교육세신설등으로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형편인데 이것이 부진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않을까 우려된다.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상배당세및 부가세가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

負擔率 완화노력을

▲全經聯=부담공평화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세제의 현실화·합리화에대한 노력이 미흡한감이 없지않다. 부담완화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稅源발굴등을 통해 부담률완화에대한 노력을 기대한다.

投資촉진에 制動

▲貿協=기업체질개선및투자활동촉진면에서는 미흡하다.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 지원이 아쉬우며 특히 수출산업과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中小企協=기업의 재투자와 중산층육성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과감히 인하했어야했다. 중소기업보호 육성면에서 법인세의 특별경감세율신설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확대및 법인유도를 위한 지원도 미흡한 수준이다.

▲經營者總協會=법인세 인하폭이 기대보다 미흡, 경기부양효과에는 의문이다.

輸出增加勢 크게 둔화
이달 들어

한동안 크게 증가해오던 輸出信用狀來到額이 이달들어 급격히 감소하고있는 가운데 輸出증가세도 둔화되고있다.

18일 상공부가집계한 9월중 16일현재의 수출신용장내도액은 5억8천9백38만2천달러로 지난해同期에 비해 무려 16.3%가 감소했으며 수출액도 6억6천1백15만7천달러로 지난해 同期對比 9.9%증가에 머물러 8월말까지의 증가율 24.6%에 비해 그증가세가 크게둔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 輸出先行지표인 수출신용장내도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것은 한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해오던 纖維類의 해외수요가 일어나지않고 있는데다 EC(歐洲共同市場)지역국가의 通貨약세와 함께 東南亞및 中東등지의 景氣침체로 다른 수출주종품들의 신규오더가 발생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纖維類의경우 지난 8월까지 배정된 쿼터를 거의 소진하고 신규오더가없어 일부업체들은 가동 중단사태까지 일어날 위험성마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달들어 16일현재의 輸入額은 10억4천8백93만7천달러로 前年同期對比 10.8%증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對韓石油판매 1일 2萬배럴씩 멕시코

【멕시코시티18日聯合=本社特約】멕시코는 한국에 하루 2만배럴씩의 석유를 판매할것이라고 멕시코국영석유회사 페멕스가 17일 발표했다.

EC, 投資사절단 보내기로
한국의 5次 經濟5개년計劃에

다비뇽EC집행위부위원장은 17일 한국의 5차5개년 계획에 EC의참여를 확대하기위해 EC투자사절단을 한국에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비뇽부위원장은 브뤼셀에서열린 유럽-한국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EC투자사절단은 한국개발계획에 관심이많은 EC회원국의 기업인들로 구성될것 이라고 말했다.

經濟短信

▲大宇、金宇中 회장, 中 부회장 李雨馥씨=대우개발、대우실업합병에 따라 주주총회는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統合社대표이사회장에 金宇中사장을, 대표이사부회장(사장)에 李雨馥대우실업사장을 내정. 또 대우개발은 부대표이사사장에 李憲翰부사장과 金東圭이사를 선임.

▲해태제과등 3종목 2부로지정=證券去來所는 6월말결산법인으로 최근 결산기에 配當을 실시치못했을 뿐더러 납입자본이익률이 10%미만인 해태제과 해태유업 江原産業등 3개종목을 상장1부에서 2부로 지정.

▲大元製紙유상증자=同社는 오는10월17일을 배정기준일로하여 27·7%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 청약기일은 11월12·13일 양일간.

大邱 養老院실태
수용자 16%가 家出老人 대부분 가정不和등 이유

【大邱=聯合】대구지방양로원에 수용된 노인중 15%이상이 가정불화등으로 가족을 버리고 나온 가출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大邱市의 불우노인위탁기관인 大邱시립희망원과 和成양로원 永樂양로원등 3개 노인수용시설에 따르면 60세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247명중 16%인 40여명이 가출노인이라는것. 永樂양로원의 경우 65세이상 노인 1백25명(남35 여90명)중 자식있는 노인이 10명이나되며 和成양로원도 65세가 넘은 할머니 77명중 25여명이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言論人자녀 學資金 放送廣告公社 지급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8일 신문·방송·통신등 46개 언론기관에 재직중인 언론인의 자녀 5천21명(중학생 3천72명·고교생1천9백49명)에게 금년도 3기분학자금 2억3천3백67만6천원을 지급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外務部, 3個局 폐지
通商·外信文書·條約局 12局서 9局으로 縮小

외무부는 18일 通商局과外信文書局、條約局등 3개국을폐지、현재의 12개국에서 9개국으로 축소하고 儀典室長을 儀典長으로 개편하는내용의 본부기구축소改編案을 마련、총무처에 제출했다.

顯日각료회의등으로 기구축소자체試案마련 작업이늦어졌던 외무부가 이날 자체試案을 제출함에따라 35개대상기관이 모두試案을 제출한셈이됐다.

외무부 고위관계자가 이날기구개편안 내용을 밝히면서 폐지되는 통상국의 상담기능은 각 지역국으로、多者관계통상기능은 국제 경제국으로、외신문서국의 문서기능은 정보문화국으로 각각흡수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조약국의 쌍무협정에관한업무는 각지역국으로、多者協定부분은 국제경제국으로 흡수시킬방침이다. 이관계자는 이에따라 외무부의 58개課중 10여개課가 폐지될것이라고 밝히고 심의관은 꼭필요한경우에만 두고 대부분폐지시킬것이라고 전했다.

이관계자는 이번 기구개편안은 외교戰力을 弱化시켜서는 안된다는데 원칙을 두고마련했다고밝히고 각 지역국의 기능이 크게강화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의 기구개편문제는 정부가 시달한 개편기준에 맞춰 자체에서 처리할것으로 알려졌다.

課稅싸고 受賂 稅務員등 검거

【大邱=聯合】大邱시경은 18일 유흥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및 세금부과를 둘러싸고 금품을 받은 大邱市東區보건소직원 崔용한씨(35)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재무부세정국직원 韓相日씨(35)、北大邱세무서직원 朴鍾曙씨(32)등 관계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시내中區南一洞 흑백살롱주인 柳萬吉씨(38)를 업무상횡령및 뇌물공여혐의로、中區市政洞16 무궁화캐빈주인 朴聖培씨(30)를 횡령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노름빚찾으려 請負폭행
大邱 6週중상…3명令狀

【大邱=聯合】大邱시경은 18일 사장족 10억대도박사건때의 노름빚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자에게 폭행을 가한 丙熙大(31·大邱市中區大鳳洞144)、金世憲(31·壽城區池山洞명도주택18호)、金起洪씨(32·西區中里洞중리아파트42동202호)등 청부폭력배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물공장사장족 10억대 도박사건때 노름을하다 경찰의 수배를 받고있는 馮泰煥씨(46)의 부탁을받고 지난1월28일 상오11시30분께 10억대 도박당시 노름빚을 진 崔相洙씨(46)에게 노름빚 3백50만원을 갚으라면서 마구때려 늑골3개와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리는등 전치6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었다.

美·中東전략에 危機
議會서 對사우디 警報機판매 거부땐
헤이그

【워싱턴17日AP·UPI=聯合】헤이그美국무장관은 17일 만일 美의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판매를 거부할 경우 「미국의 안보와 이스라엘의 安保平和자체」가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상원외교위원회에서 AWACS기의 對사우디판매를 옹호하면서 이는 『소련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터키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각국과 방위협력을 모색하려는 美전략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소련의 대대적인 위협을 억지하려면 미국은 우방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WACS기 판매계획에 대한 上院의원들의 반대를 무마하려는듯 이날 회의에서 『따라서 미국은 이스라엘·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및 그밖의 온건 아랍국과의 강력한 전략협력관계를 모색중』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협력모색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안보와 이스라엘의 안보 및 평화가 위협받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의 안보강화가 미국의 中東정책의 열쇠라고 밝힌 헤이그장관은 사우디의군사력증강과 이스라엘안보관계에 언급、이스라엘과 중동지역내 여러 아랍국간에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전략적합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AWACS기의 對사우디판매에 따른 4개항조건으로①AWACS기나 이비행기가 수집한 정보의 第3國移轉제한 ②이들자료에 대한 미국의 접근 ③AWACS기 자체보안강화 ④사우디AWACS기의 활동지역규정등이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것은 밝히지 않았다.

對사우디 警報機販賣난관
美上院의원51명 反對同調

【워싱턴17日UPI=聯合】美공화당소속 상원의원 21명을 포함한 상원의원 51명이 17일 레이건 대통령이 제안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5대가 포함된 對사우디아라비아 무기일괄판매 법안에 반대、보조를 같이하기로 한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은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됐다.

이결의안 서명작업을 주도한 로버트·패크우드(共·오리건)、헨리·잭슨(民·워싱턴)두 상원의원은 과반수선(50명) 이넘는 51명의 서명자외에도 공화당소속 2명과 민주당소속 4명등 6명의 상원의원이 표결때 반대표를 던지기로확약했다고밝혔다.

核體制 3元化
美, 6천5백여臺 地·海·空에 배치

【워싱턴17日UPI=聯合】미국은 오는 80년대말까지 2천5백基이상의 크루즈미사일을 해군함정과 잠수함에 배치、해군의 현재 미사일보유수를 4배로 증가시키는것을 포함、총6천5백5基의 미사일을 地上·海上및 공중에 배치함으로써 3元전략核軍체제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美군사소식통들이 17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토마호크·크루즈미사일이 82년1월부터 해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며 지상발사미사일은 1989년까지의 총5백60基중 464基를 유럽에 배치하는것을 목표로 83년부터 유럽에 배치될것이라고 말했다.

2대 駐中共美大使 허멀2世 오늘부임

【北京18日AP=聯合】中國에서 태어나 한때 중공게릴라들과 함께 抗日戰에 참가했었던 직업외교관인 아더·W·허멀2세(61)가 18일아침 北京에 도착, 제2대 駐中共美大使에 부임했다.

◇레이건·포드기념관 헌당식에참석한 레이건 美대통령이 포드前대통령 기념박물관헌당식참석을 위해 17일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켄트·카운티 국제공항에 도착,포드前대통령의 영접을 받은뒤 환영객들에게 함께 손을 흔들고있다.【그랜드·래피즈(미시간)17日AP電송=聯合】

여성
"法的으론 平等하나 實際로는 差別많다"
기센博士、西獨의 男女平等 강연

오는 10월5일 창립25주년을 맞는 가정법률상담소(소장 李兌榮)는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15일하오2시 여성백인회관강당에서『西獨의 남녀평등』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한 국제가족법협회會長이며 베를린 자유대학교수인 디터·기센박사는 『法的으론 완전한 평등을 누리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많은것이 西獨의실정』이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1945년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西獨은 그당시 모든 권리를 남성들이 갖고있었다. 가족의 이름은 당연히 남편의 이름을 따르게 되어있었고 이혼을 할경우 자녀양육권과 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남편에게 있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오늘날엔 여자의 성을 따라 가족의 이름을 지을수도 있고 자녀문제는 부부가 같이 결정하고 있으며 여자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 또는 처분할수 있게 되었다. 法的으로는 이렇게 모든것이 평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약간의 차별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자들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할수없고 軍에도 입대할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西獨에서도 離婚을 아주 쉽게 할수있도록 되었다. 부부가 1년동안 별거를 했다가 어느 한쪽이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가능하고、이때 한사람이 반대를 할경우 다시 3년간 별거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양육문제는 재산보다는 어느쪽의 인품과 성격이 더 좋으냐에 따라 양육권을 갖게된다.

이혼을 쉽게 할수있는데에 따른 문제점의 하나는, 지금까지 집에만 있던 여성들이 남녀평등이라는 법적인 규정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사실이다.

여자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이중의 부담과함께 교육수준이 남자보다 낮기때문이다. 현재 독일남성들의 60%가고졸인데 비해 여자들은 고졸 또는 중졸이 60%이다.

특히 어린이를 둔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가정이므로 남성들은 남편이기전에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子女문제는 夫婦함께 결정 職場선 보수적고 昇進안돼

대처男便 政治파문 「工事승인」촉구로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의 남편 데니스·대처씨가 자신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한 건설회사의 공사계획신청을 조속히 승인해주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담당자료에게 발송했음이 英國신문들에 의해 폭로돼정치스캔들에휘말려들었다. 부유한기업가로한건설회사의고문직을 맡고있는 대처씨는 작년12월 웨일즈담당국무상인 니콜라스·에드워즈씨에게 보낸 私信에서 이건설회사의 공사계획신청에 대한 정부승인이 지연되고있는데대해불평을토로했다고신문들은 보도했다.【런던=聯】

메아리
가을 운동회

재작년은 「세계아동의해」였다. 떠들썩한 행사와 여러 모임이 많았지만 거의 기억에서 조차 사라졌다. 그해 어느 조사기관에서 밝혀낸 우리 아동들과 외국어린이의 의식세계비교는 학교와 가정생활에 몇가지 암시를 던져주었다.

美·英·佛·日등의 어린이들처럼 우리국민학교 학생들은 하루 6~7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집에 돌아오면 절반가량이 1~2시간 친구들과 논다. 이는 시간이 외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귀가해서 자유시간은 텔리비전 시청을 가장 즐긴다. 이것은 외국과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밖엔 대부분 친구와 놀거나 책을 읽는다고 했다. 자유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외국 어린이보다 다양하지가 못한셈이다.

우리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와 학교성적". 그래서 다른 나라 아동과 달리 가정보다 학교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어린이들의 마음 한 구석을 누르고 있는 학교생활의 비중이 짐작할만 하다.

꿈결같은 국민학교 시절의 추억중 제일 인상깊은 회상은 학예회와 소풍、그리고 운동회를 꼽게 된다. 그러나 과밀학교가되면서 학예회는 사전에서나 찾아 볼수 있는 행사가 되어 버렸다.

명색만의 소풍은 옛날의 흥겨움을 갈수록 잃어간다. 고작 도시락이나 먹고 돌아오는 날로 생각이 들게 되었다. 온마을의 축제같던 운동회는 있었다 없었다 浮沈마저 했다. 어린이들의 꿈이 하나 하나 깨어져 가는듯한 아픔을 느끼게 한다.

운동회가 이렇게 구박을 받은것은 과밀학교와 찬조금의 부조리 탓이었다. 콩나물시루 운동장은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공감을 줄수가 없다. 달리기라도 한번 해볼 기회가적기때문이다.

찬조금은 학부형의 마음에 짙은 그림자를 던졌다. 어제 아침 한국일보 「讀者의 소리」엔 이런 귀절이 눈에 띄었다. 『언젠가 운동회에 가보니 찬조금을 낸학부형 명단과 금액을 본부석앞에 써붙여 매우 어색했다』

지금부터 가을운동회철이 시작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세상시름을 털어 버리고 하루를 즐기는 「마을축제」가 운동장마다 활기 넘치게 벌어질것이다. 「청팀 이겨라…」「백팀 이겨라…」 어린이들은 건전한 꿈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

流星의 賊
明暗 ⑦ <187>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심의겸과 친했다는 것이 무슨 죄가』

홍섬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때문에 또 무슨 말썽이 있는 겁니까』

계남이 물었다.

『심의겸이 귀양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계기가 된걸세. 심의겸이 죄인이 되었으니 심의겸과 교의가 있던 사람들도 모조리 죄인이라는 거지.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야단들이다』

『특별히 서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발(李潑)이란 놈이다. 겉으론 번들번들 꾸미고서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으니 쯧쯧』

『그렇다면 계함선생님의 마음도 편하시지 않겠군요』

『미리 선수를 칠 순 없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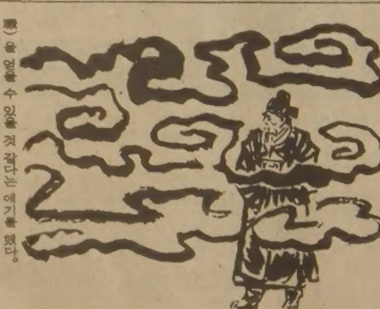
『심의겸에게 죄 주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게 한이다』

『그렇다고 가만 앉아서 화를 기다리고만 있을순 없는 것 아닙니까』

『될대로 되라고 할 밖에 없지. 놈들과 아옹바둥 싸울수도 없는 일이구. 아뭏든 난 상관 없는 마음이다. 걱정은 나라의 꼴이지. 이런 꼴로 나라가 어떻게 부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다. 북쪽이 시끄럽고 남쪽도 시끄럽다는데 말이다』

『미구에 난리가 날꺼란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자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섭섭하구나. 숙헌이 자네 걱정을 하고 간절하게 내게 부탁했었는데…』



…)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이영? 이영이 누굴까?』

홍섬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위무관한 선비로 보았읍니다만 대궐과 통하는 것이 있는듯 했읍니다』

『정체 불명한 사람이 입궐의 측근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이영인가? 그래 그 사람이 무슨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던가』

『사맹(司猛)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였읍니다』

『사맹? 사맹이면 정팔품(正八品)이 아닌가』

『그렇다고 들었읍니다』

『안되네 그건. 무과(武科)를 거치지않고 그런 자리에 앉는 건 좋지 못해. 남의 시기를 받을 뿐이니. 그분의 호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부사용(副司勇)쯤의 자리를 달라고 하게. 부사용은 종구품(從九品)이니 그만 해도 이례(異例)의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예, 잘 알겠읍니다』

『자네도 알고 있을줄 믿는다만 이순신(李舜臣)이란 무인(武人)이 있느니. 기골 장대하고 출중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직계(職階)는 봉사(奉仕)이다. 종팔품(從八品)의 봉사란 말일세. 나이도 자네보다 십여세연장이고 당당한 무과출신(武科出身)인데도 지금 그 직에 불평없이 복무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자네가 사맹이 될수 있겠는가. 설혹시켜 준다고 해도 고사(固辭)하는것이 도리니라』

『잘 알겠읍니다』

홍섬인은 그 밖에도 갖가지 교훈을 주곤 계남이 물러나올 때 선양의 돈을 쥐어 주었다.

『제 일로 마음을 쓰시진 마옵소서』

하고 계남이 이영의 이름을 들며 범조에 맡긴 (未

1981—2 학년도 미시사가 한글학교 학생모집안내

미시사가 한글학교에서는 1981－2년 학년도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수업기간 : 1981년 10월3일～1982년6월19일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장　　소 : 퀸·에리자베스 시니어 퍼브릭스쿨 (60 Service Rd. South Missisa.)
자　　격 : 1) 유치반이상 8학년까지
2) 특수 교육반(9학년～12학년)
수업과목 : 한국어, 미술, 음악
특 수 반 : 고학년을 위한 영어교육반(미시사 교육청이 파견하는 영어교사가 지도예정)
합 창 반 : 미시사가 어린이 합창단을 창설코 단원을 모집중.
수 업 료 : 학생1명 39달러、2명이상 78달러
연 락 처 : 문 가 자(828－6212)
유 경 숙(277－2394)

미시사가 한글학교 교장
문 가 자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10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濟州공항 자유寄着地로

내년부터 東京·北京行등 여객기에

觀光客 비자없이 15일체류 / 80년代 국제觀光地로 발돋움

濟州국제공항이 내년부터 자유중간기착지로 개방된다. 이로써 모든 국제항공사의 東京~北京이나 上海구간과東南亞지역~서울구간을 왕복하는 국제선여객기가 자유롭게 濟州공항에 기착, 입국비자를 받지않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5~15일동안씩 濟州관광을 즐길수있게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무부, 국방부등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친것이다.

이들 관계 당국은 濟州道를 자유항으로 지정, 외국인 투자도 촉진하여 濟州道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관광정책과 병행, 제주공항의 자유중간기착지화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의 한 고위소식통은『濟州공항을 중간 자유기착지로 개방하게되면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급증할것이며 80년대중반까지 濟州道가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될것』이라고 내다보고『중간기착허용문제는 항공협정상의 이원권(以遠權)문제와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외국제선항공사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부는 濟州道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구체안에 대해 용역을 준 외국관계기관으로부터 회답이 오는대로 접부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10월초순께는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濟州국제공항은 현재 사용하고있는 활주로가 짧아 지난79년부터 보잉747점보機가 착륙할수있도록 길이3천m, 폭45m인 국제규격의 새활주로 건설공사에 착수했으며 금년말까지 확장공사가 끝나면 내년초에 새공항청사 건설공사에 나설예정이다.

금년들어 8월말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모두 72만6천81명인데 이중 濟州道를 찾은 관광객은 2만6천1백90명뿐이었고 입국사증없이 입국한 관광객은 4천29명에 불과했다.

올림픽誘致 공개討論會

나고야市와 市民간 賛反놓고

【東京17日=聯】나고야(名古屋)市당국과 올림픽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그룹간의 공개토론회가 16일저녁 나고야에서 열려 88년 올림픽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反나고야·올림픽시민운동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반대파는『메인스타디움』으로 예정된 평화공원을 시민과 생조류의 휴식처로 보존해야한다』『도로, 지하철등의 공공사업이 자치단체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지와 교육예산을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市당국은『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며 반대파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하고『관련사업도 재정압박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7년동안 통상베이스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논쟁은 결국 평행선을 달렸다.

反나고야·올림픽 시민운동연합은 지난 4월 시장선거에서 反올림픽 후보를 내세워 모또야마 시장의 3선저지운동을 벌였었다.

韓·日등 參加통보

말聯 MAAU경기

【쿠알라룸푸르17日AP=聯】韓國·日本·濠洲·싱가포르가 10월20~23일 열리는 말레이지아 아마추어 운동연맹(MAAU)경기에의 참가를 통보해왔다고 가잘리·샤피MAAU회장이 17일 밝혔다.

샤피회장은 이경기는 참가선수들과 오는12월 마닐라대회에 참가하는 말레이지아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할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대회에는 약5백명의 선수들이 참가할것으로 알려졌다.

韓電 2승先頭

實業야구 經理團 꺾어

韓電이 18일 仁川공설운동장서 벌어진 실업야구후기2차리그 이틀째 경기에서 經理團을 4-1로 물리치고 2승을 기록, 선두에 나섰다.

韓電은 金文熙 李光權의 계투로 經理團을 산발6안타로 누르며 金容雲의 6회초 홈런을 포함한 7안타로 4득점, 4-1로 낙승했다.

星武는 宋日燮의 6회초 솔로홈런과 金鎭雨의 1회초 선제홈런으로 第一銀行에 4-2로 승리했다.

◇제2일전적

성무(1승) 100 011 001—4
제일은(1패) 000 001 001—2
▲홈런=金鎭雨(1회)宋日燮(6회·이상성무)

한전(2승) 200 002 000—4
경리단(1패) 000 000 001—1
▲홈런=金容雲(6회·한전) 禹京夏(9회·경리단)

◇제1일전적

롯데 111 010 111—7
농협 001 100 00×—2
▲홈런=崔聖甲(4회·농협) 金漢根(8회·롯데)

花郞에 親善戰요청

아랍 에미리트聯

【쿠알라룸푸르17日AP=聯】韓國의 花郞팀은 아랍에미리트聯합으로부터 다음달 中東순방대회중 아랍 에미리트聯합과 2차례의 경기를갖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金正男코치가 17일 밝혔다.

金正男코치는 메르데카杯축구대회에 참가한 아랍에미리트聯합팀이 귀국하기 이틀전 아랍에미리트聯합 코치로부터 이같은 요청을받았다면서 大韓축구협회가 이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正男코치는 아랍에미리트聯합과의 경기가 사우디아라비아및 이라크와의 경기를 전후해서 열릴것이라고 덧붙였다.

日도 中共에辛勝

핸드볼 亞洲예선

【東京17日=聯】日本은17일 남자세계핸드볼선수권 아시아 지역예선B조 2일째경기에서 中共에 18-17로 신승했다.

이에따라 모두 中共에 승을 거둔 韓國과 日本이 지역대표권을 놓고 자웅을겨루게됐다.

이날 동오교(東京) 체육관에서열린 日本-中共전은 전반전 中共이 10-7로 앞섰으나 후반 日本의 속공에 밀려 10분경과후 연속5골을허용, 끝내 역전패당하고 말았다.

쿠니와 타이틀戰

홈즈, 내년3월에

【라스베이가스(네바다)17日AP=聯】프로복싱 WBC 세계헤비급 챔피언인 래리·홈즈는 내년3월 라스베이가스의 시저스·팰리스에서 게리·쿠니와 헤비급 타이틀경기를 갖는다고 17일 공식발표되었다.

홈즈와 쿠니는 이날 WBC세계웰터급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와 WBA동급챔피언 토머스·헌즈가 통합챔피언대전을 협의했던 같은방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이같이 발표했으며 이대전을 주선할 돈·킹씨는 헤비급 타이틀대전일자가 폐쇄회로TV방송을위한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錦城中 覇權차지

全國씨름 중등부

제18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18일 釜山九德체육관에서 개막, 중등부결승서 금성중이 4-3으로 釜山鎭中을꺾고 우승을차지했다.

心臟病 급격히 늘고있다

食生活개선따라 10년동안 무려 2·5倍

延世醫大 李雄求박사팀 조사

식생활이 서구화돼가는 템포에 비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심장병환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연세대의대 심장내과과장 李雄求교수팀이 지난 70년부터 5년 간격으로 동병원을 거쳐간 입원환자 5만9천2백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병별분석결과드러났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70년 연세대의대부속병원에 입원한 총입원환자 1만6천9백11명중 심장병환자수는 7백58명에 불과했다. 그러던것이 75년 1만7천2백27명중 1천43명, 80년은 2만5천87명중 2천8백51명을 기록, 연도별 입원환자수를 1천으로 잡을때 70년은 45, 75년 61, 80년 1백14를 나타내, 지난 10년간 심장병환자가 무려 2·5배, 5년전에 비해서는 1·9배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는것이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지난 10년동안 고혈압성심장병이 2·5배, 판막증 3·0배, 선천 허혈성심장병 2·7배, 선천성심장병이 3·3배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李박사는 모든 종류의 심장병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특히 협심증과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심장병이 크게늘고 있는것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고기와 우유등 단백질과 지방분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화 경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란것.

李박사는 따라서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가져다 주는 이들 허혈성심장병의 예방과 조기발견및 치료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行政書士「定員」폐지

내달부터, 자격요건·罰則등 완화

행정서사의 지역 정원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내무부는 18일 행정서사의 지역 정원제가 행정서사의 난립을 막는데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정원제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등 국민편익에지장을 빚고있다고 보아 이를 폐지함과동시에 행정서사의 자격요건과 벌칙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10월부터 행정서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수 있게됐다.

일반행정서사, 외국어번역행정서사, 해사(海事)행정서사등 3종류의 행정서사중 일반행정서사는 국가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해사행정서사는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경력이있는 사람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신청에의해 허가를 내주고있다.

외국어행정서사는 초급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번역업무에 5년이상 경력이있는사람에한해 허가를 내주게돼있는데 앞으로는 전공에관계없이 초급대학이상의 학력과 업무경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업을할수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할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행정서사에대한 벌칙도 신고의무나 경미한 의무사항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재의 벌금중심에서 과태료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景城·서라벌高 4強진출

慶熙는 光城 꺾고도 탈락

서울市中高 아이스하키

景城高와 서라벌高가 4강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에 선착했다.

18일 동대문 실내링크에서 벌어진 제1회 서울시장배쟁탈 서울시중고 아이스하키대회 3일째 경기에서, 고등부A조의 景城高는 서라벌高에 6-3으로 승리, 3연승을 기록하고 예선수위팀으로 결선에 진출했으며, 1패를 기록한 서라벌은 예선2위팀(2승1패)으로 역시4강에 합류했다.

같은조의 慶熙高와 光城高대전에서는 초반부터 시종 밀고밀리는 접전을 전개한끝에 慶熙가 9-8, 1점차로 가까스로 승리했으나 1승2패로 결선진출이 좌절됐다.

景城은 이날 1피리어드37초께 서라벌 李原碩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3분과 5분께, 卞善都·曺正東이 한골씩을뽑아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2-3으로 뒤지던 서라벌은 2피리어드 11분30초께 李原碩의 골로 3-3 동점을 만들고 추격의 자세를 취했지만 3피리어드에서 3실점, 6-3으로 패배했다.

景城高의 卞善都과 尹聖燁은 이날 경기서 각각 2점씩을 얻어 팀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제3일전적

▲고등부A조
경희고 9 (3-3 3-2 3-3) 8 광성고
경성고 6 (3-0 0-1 3-2) 3 서라벌고

▲동순위=①경성 3승 ②서라벌 2승1패 ③경희 1승2패 ④광성 3패

京畿大, 全北大 눌러

대학排球

京畿大가 全北大를 3-0으로 누르고 제9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우수대학 배구연맹전서 서전을 장식했다.

京畿大는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대회 이틀째경기에서 선수전원의 고른활약으로 낙승, 전날 서강大를꺾은 성균관大와 나란히 1승씩을 기록하고있다.

이날 경기대는 국가대표팀의 주공 張允昌이 폭넓은활약을 보여 첫세트를 15-4로 가볍게 따냈다.

경기대는 2세트에서도 張允昌대신 기용된 姜在奎(1m88)가 왼쪽에서 맹활약을 보이고 주장 趙疲行이 전북대의공격을 블로킹으로 적극차단, 15-6으로 따냈다.

전북대는 3세트초반 유일한 4년생 文主洪(1m88)을 중심으로 적극공세를 펴는듯했으나 경기대의 짜임새있는 강연공에 단두점만을 따낸채 완패했다.

경기대 1년생 세터 羅昌一(1m76)은 좋은 토스로 팀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어 벌어진 번외경기에서 서울대는 사우디아라비아대표팀(감독 韓明奭)을 3-0으로 물리쳤다.

성균관대(1승) 3 (15-9 15-8 15-9) 0 서강대(1패)
경기대(1승) 3 (15-2 15-6 15-4) 0 전북대(2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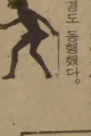
▲번외경기
서울대 3 (15-13 15-13 15-9) 0 사우디

西獨IOC 참석

曺體育會長 출국

曺相鎬 대한체육회장은 오는30일 西獨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IOC 정기총회에 참석키위해 18일 하오 KAL편으로 출국했다.

曺회장에는 崔萬立 KOC명예총무, 金聖集 체육회 국제위원등 3명도 동행했다.



신랑감이 부족하다

慶北지방, 딸둔父母들 애태워

男75명 女百명꼴…남자6·25出產·여자戰後세대 불균형

신랑감이 모자란다. 최근 大邱지방에서는 결혼시즌을맞아 적령기의 딸을둔 부모나 당사자들이 마땅한 배필을 구하지못해 애를태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자27·4세, 여자23·6세인데 大邱를포함한 경북지방의경우 이 연령의남자는 4만3천3백명으로 5만4천1백명의 여자에 비해 무려 1만여명이 부족하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이같은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경북도집계에 따르면 혼기인 26~29세의 남자가16만3천6백명이고 22~25세의 여자가 21만8천8백명이나돼 결과적으로 5만5천2백명의 신부감이 혼기에 알맞는 신랑감을 찾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여자1백명에 남자는 75명꼴의 비율이다.

이같은 현상은 남자의경우 출산율이 낮았던 6·25동란중에태어나 지금이 결혼적령기인데 비해 여자는출산붐이 크게 일었던 전후세대여서 연령별 인구분포상 구조적으로 균형을 잃고있기때문.

이로인해 결혼철을 맞아 大邱시내 결혼상담소에도 신랑감기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大邱미도결혼상담소 禹在八소장(60)은『여자의 구혼신청이 남자에비해 7대3정도로 많이 들어오고있다』고 밝혔다.

和信결혼상담소 金麥鉛소장(62)은『종전에도 여자들이 남자에비해 결혼상담소를 많이 이용했으나 요즘은 남자의 2배에 이를정도로 늘어났다』면서『노처녀 적체현상은 앞으로몇년간더욱커질것같다』고 내다봤다.【大邱=聯】

〈천주교 前 平壤교구장〉 캐럴·몬시뇰別世

천주교 平壤교구장서리를 지냈던 조지·캐럴·몬시뇰씨(사진)가 지난76년이후 정양중이던 미국 뉴욕 매리놀선교회본부에서 17일 상오6시(한국시간) 별세했다. 향년 75세.

1931년 처음 한국에왔던 캐럴·몬시뇰씨는 특히 한국전쟁중 가톨릭구제회 책임자로서 눈부신 구호활동을 벌였으며 61년 대한민국문화훈장을 받았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19일 상오9시30분 明洞성당에서 金壽煥추기경집전으로 추도미사를 갖는다.

나의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51

46년 6월3일, 해방의역사에 중대한 전환을 예고하는 李承晩박사의 발언이 나왔다.

李박사는 湖南지방유세중 井邑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역설하면서『美·蘇共委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않으며 공산측의 책동으로 통일정부의 전망이 암담하니 우리는 南韓에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같은 것을 조직해 38以北에서 소련이 철수토록 세계여론에 호소해야 할지니…』라는 중대한 발언을 한것이다.

南韓단독정부수립의 신호탄이었다. 당시 북한엔 이미 소련에의해 人民委員會가 조직돼 있었다.

李박사의 발언은 또 그가 앞서 수개월 病苦에 시달리면서 활동을못한 틈을이용, 적극공세를 전개해온 左翼에대한 大攻勢의 신호였다.

그는 이어 獨立促成國民會의 총재직을 수락한뒤 6월말엔 白凡 金九선생과 함께 民族統一總本部를 발족시켜 자신은 총재가 되고 白凡은 부총재가 되었다. 당시 雩南과 白凡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중상모략이 左右派 양쪽에서 끊임없이 있었지만 두분의 협력과 각별한 同志愛는 진정 눈물겨웠다.

하지와 軍政장관 러치는 李박사의 井邑발언을 경계하면서 노골적

李박사의 軍政案

井邑發言나오자 軍政당국 妨害시작

金奎植과呂運亨에 臨政맡길 工作펴

인 방해공작에 나섰다. 국무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대로 左右合作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는 軍政방침에 거슬리는 李承晩, 金九의 右派민족주의자와 소련, 平壤의 지령을 받는 極左를 제외시키고 온건·中間派 세력을 키워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를 맡게할 심산이었다.

하지는 左右合作의 求心役으로 중국에서 공산당과의 접촉경험이 있고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金奎植과 온건左派 呂運亨을 중심으로 공작을 펴나갔다.

이해 5월부터 노골적으로 시도된 左右合作공작은 7월 合作派의 1차공식회합에 이어 10월에 左右合作7原則이 나오기에 이른다.「莫府三相회의결정에 의해 남북을통한 左右合作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등을 발표한 이 발표는 민족·공산두진영으로 부터 다함께 규탄을 받았다.

이 시기에 각처에선 좌익에 의한 騷擾, 시위, 테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5월엔 그 유명한 精版社僞幣사건이 터졌고 9월들어 軍政이 공산진영신문을 停刊시키고 공산당간부 체포령을 내릴 때 공산측이 총파업을 선동, 소요가 걷잡을수 없이 일어났다. 그러더니 大邱지방에선 테러, 殺傷이 극에 달하는 이른바 10월폭동이 일어났다. 南勞黨이 결성된것은 그직후의일이다.

하지의 軍政은 계속 幻想만 꿈꾸고 있었다.

軍政은 이해 8월「朝鮮過渡立法議院의창설」에관한 美軍政令을 제정하고는 10월들어 立法議院을 구성하기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이래서 民選의원45명과 李承晩 金九등 우익민족인사를 제외시킨 官選의원45명을 선출했다. 그러고는 12월 金奎植박사를 의장으로한 立法議院을 발족시켰다.

그당시 하지는 立法議院을 만들면서 民主議院을 폐쇄시키려했다. 하지는 그의 정치고문인 버치중위에게 권한을 주어 昌德宮 仁政殿에 있는 民主議院을 습격, 해산시키도록했다. 버치가 군대를 이끌고 습격해오자 난 권총을 빼들고 대항했다. 험악한 기세에 버치는 기가 질렸는지 꽁무니를 뺐다. 그때 軍政은 趙炳玉경무부장으로하여금 권총을 소지했다하여 날 체포하려고 작정했다가 나의 배후에 있는 수많은 우익 청년들이 가만히있지 않을것이란 말을듣고는 계획을포기했다는것이다.

그뒤로 하지는 李박사와 그가 이끄는 民主議院, 독립촉성국민회에 더욱 敵意를 드러내고 일을 방해하려 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李박사의 정치노선은 明若觀火한 것이었다. 당시 남북통일, 左右合作이란 국제정세와 정치의 哲理를 모르는 한낱 理想論이자 感傷論이었다.

大前提는 反共이었다. 그 전제를 무시한 역사는 수십년 끝없이 同族간에 피를 흘려야하는 긴 홍곡의 매사이거나 內政문제에도 펭크를 물고 들어가 민족을 억압하는 소련의 위성국가 東歐의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해방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려한것은 사실이나 美국무성에는 戰後에도 親日派가 많았고 공산주의를 모르면서 동조하는 핑크빛 인물도 적지않아 그 정책이란 뜬구름잡은 것이었다. 해방후에도 한국이란 짐을 일본에 넘겨보자는 인물들이 있었으니 오죽했을까.

◇하지중장은 李承晩박사를 견제하기 위해 御用기구인 過渡立法議院을 만들었다. 사진은 46년 12월12일 중앙청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개회사를하는 金奎植의장.(上)

訂正 나의이력서 ⑰회중 陸活助는 鶴見祐輔로, ㉘회에서 일본정치인 鶴見浩는 白寬洙로 각각 바로잡고 ㊾회에서 2번째段중「워싱턴에있는 교포들에게 반대시위벌이게…」의 교포를 歐美委員部 林炳稷대사로 고칩니다.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12시~밤1시
토: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759-8512
최 영 호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아롬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2 MEADOWGLEN PLACE
202A, SCARB.
ONT M1G 2V6
☎: (B)438-6440 (R)439-1335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30AM~새벽2시까지
토 일: 2:00PM~2: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416) 977-9818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416) 222-9480

한인연합상사

— CASH & CARRY ONLY —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DURACELL BATTERY "C" OR "D"	12× 2's	24.70
AA	12× 2's	20.00
9 V	12× 1's	22.00
AAA	12× 2's	20.00
DURACELL WATCH BATTERY SALES, TOO.		
COLGATE TOOTH PASTE (Reg & Mint)	24× 50ml	12.00
CREST TOOTH PASTE	24× 100ml	27.80
HEAD & SHOULDER	12× 175ml	20.00
SCOPE MOUTH WASHER	12× 175ml	11.00
DIET PEPSI	24× 10oz	5.50
WILSON POP		5.50
CANADA DRY LEMONADE		5.70
GINGER BEER		5.70
NESTEA		5.70
PEEK FREANS ALL FLAVOUR 200G	12× 200g	9.00
WAGON WHEELS ALL FLAVOUR	12× 350g	13.40
FRUIT TELLA ALL FLAVOUR	36× 30¢	4.99
M & A RIBBON LICORICE	48× 10¢	2.99
ROWNTREE HALLOWEEN TREATS	16's PER BAG	2.00
SPONGE TOFFEE	48× 20¢	6.35
BLACK DIAMOND SMOKED ALMOND	24× 17g	5.99
〃 〃	12× 85g	12.50
TOOTSIE ROLL	48× 15¢	4.00
JUST A DROP	3G	.99
EDDYLITES SAFTY MATCHES	2500's	17.00
DOMGLAS HOME CANNING JARS WITH CAP	12× 32oz	3.00
EXPORT TIN TOBACCO	200G	3.75

SO ON, SO ON…….

CASH & CARRY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달갈, 양파, 감자를 준비했읍니다.

한 인 연 합 상 사

U. K. L. CASH & CARRY ☎ : 251-6578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